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설 명절 관계로 쉽니다. 점심 식사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성실교회(양평)에서 열립니다. (주제 : “오늘, 예수님을 만나다”- 산상수훈 산책)

유치부 성경학교가 28일(토)과 29일(일) 양 일에 걸쳐 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1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여선교회에서 떡국 떡을 판매합니다. 2.8kg에 만 원입니다.

오재환 씨와 이해린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8일(토) 오후 5시 오창 용궁가든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명절 때 상차림을 간소화 합니다.

식 당 봉 사 : 없음
 1/29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오늘설거지봉사 : 없음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이윤석 박인수 박찬덕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가쁘던 호흡을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명절을 지내며 우리의 허한 마음이 사랑으로 차오르게 하시고 이전보다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잊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잊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쉽게 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좀 더 나은 세상과 살만한 세상을 만들다 사라져간 이들과 그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채영 김시영 김정민 이해영 김지윤 김철수 박병구 김정애 손승우
 송임희 안보혜 유상진 유은정 이민범 공재량 이봉배 이성범 권현숙
 이은실 이인웅 오송경 이주영 오자영 이현순 장대호 한숙경 조병익
 조정연 최양순 최윤희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강순배 김순규 이수진 김인석 이선화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김정애
 송동준 김진경 송희원 이승연 정수복 장미란 무명4

녹색꿈헌금:

김범진 박옥식 이윤석 박안수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호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윤 김금순 김권미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의상값

신천희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열 달 동안 세 들어 살고도
한 달 치의 방세도 내지 못 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새날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새날은 옵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말고 빛을 바라며 사십시오. 생명과 진리의 빛이 동터오고 있습니다.

아멘. 일상에 매몰 되어 새날에 대한 꿈을 저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날마다 새날에 대한 꿈을 새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사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겠습니다. 새날에 대한 희망으로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섬	에스겔서 / 김재홍 목사 기도 : 박효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공동기도	김주영 선생
	한인철 목사	장영숙 전도사	박시내 집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보잘것없는 나무들

가끔씩 까닭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일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엘 간다.

좌판을 벌여 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아저씨,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짐꾼, 나물 천 원어치 사면서 십 분 넘게 입씨름하는 아줌마.....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 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 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킨 기분이라고 할까.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

해발 천오백 미터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아직까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한 나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해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수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빨간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 안에 털어 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었다. ...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 주는 관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여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 준다. 이 불품없는 관목들이 외부의 자연적인 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숲은 이전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이뤄 간다.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지반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운택한 토양을 만들어 낸다. 흔히 잡풀 취급을 하는 쑥이나 역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식물’들이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싸리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시키는 주역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 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싸리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썩썩함으로 잣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사람으로 치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 꺼리는 3D 업종 종사자라고 할까.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 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로 인해 예전의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많은 햇볕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